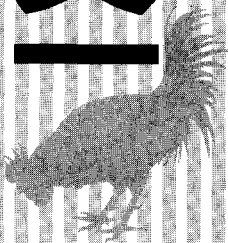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인도

양계산업 현황

인도에서의 가금산업은 음식산업중 가장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도 인도

표. 인도의 양계 발전과정

구 분	1970	1980	1990	2000(예상)	2020(추정)
계란 생산량(10억개)	5	12	23	33	120
1인당 계란 소비량(개/년)	10	18	28	35	90
닭고기 생산량(백만수)	4	30	190	700	4,000
가금생산량(천톤)	121	179	412	700	4,200
1인당 닭고기 소비량(kg/년)	0.2	0.7	0.5	0.7	3.1
인구(백만명)	548	683	846	1,000	1,337

에서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자동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않지만 정교한 기술개발 도입, 벤처기업 합작 등 자동화의 신기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육계농장이 산란계 농장보다 자동화가 더 이루어진 상태이며 10억의 인구를 보유하면서 무궁무진한 소비시장으로 인해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PI)

캐나다

닭,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파 논란

캐나다의 건강협회는 모기가 매개체 역할을 하여 인간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닭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까지 북아메리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인간에게 침투하여 뉴욕에서만 62명이 감염되어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참새나 까마귀 등 조류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닭에서는 그 동안 사례가 없었으며, 이번에 닭이 대상이 되면서 양계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동 협회는 이 바이러스의 이동경로가 대서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로 및 의심이 가는 닭의 혈청을 뽑아 정밀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I)

## 호주

### 새로운 계란소비 마케팅 전략

지난 9월 올림픽 열기로 뜨겁게 달궈졌던 호주가 계란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소비자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6~14세)로써 그



림에서 보듯이 행글라이더를 탄 계란이 힘차게 하늘을 나는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계란을 강조하고 나섰다. 호주는 스포츠와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 지속적 홍보활동을 펴기로 하였다.(WP)

## 일본

### 원산지표시 계란 78.8%, 닭고기는 60.3%로 나타나

일본 농수성이 지난 7월 1달동안 전국에 걸쳐 양계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란은 78.8%, 닭고기는 60.3%가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418개소, 슈퍼마켓 442개소, 전문판매점 514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계란의 경우 백화점이 86.7%로 가장 양호했으며, 슈퍼마켓이 79.2%, 전문판매점이 70.4%로 가장 낮았다. 또한, 닭고기는 백화점이 81.3%, 슈퍼마켓이 72.8%, 전문판매점이 26.7%로

전문판매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상당 업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鷄鳴新聞)

### 초생추 감별 향후 전망

일본 초생추감별협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초생추 감별사업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면 최대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해오고 있는 일본의 초생추감별협회는 지난해부터 깃털감별이 항문감별을 앞지르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항문감별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만큼 이들의 취업과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머지않아 초생추감별협회가 유명무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鷄の研究)

## 중국

### 청색란 인기 급상승

최근 중국의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청색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색란은 일반란 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생산지 및 날짜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상표에 식탁을 푸르게 해주는 음식을 강조하는 'Green Food Table'의 상표가 부착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한 지역신문에 의하면 이번에 유통되고 있는 청색란은 일반란보다 칼슘이 4배, 아미노산이 13%가 각각 높으며, 반면 콜레스테롤치는 44%가 낮다고 보도한 바 있다.(PI)